원숭이가 잃어버린 것

철학자와 함께 읽는 불교 동화

⑦ 욕구와 탐욕 : '욕심 많은 원숭이'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예컨대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자야 하며, 추우면 옷을 입어야 한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생존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생존의 문제는 아니지만, 특정 사회나 문화 속에서 공유하는 욕구도 있다. 평소에는 생각이 없다가도 추석이 다가오면 송편을 먹고 싶거나 동짓날엔 팥죽을 먹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문화적 욕구다. 미국인이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 요리를 먹고 싶은 것과 유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욕구도 충족되지 않으면 삶에 작은 문제가 발생한다. 오늘의 시선에서 동지에 팥죽 한 그릇 안 먹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할 수 있지만, 어르신 세대에겐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자기만 소외됐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이든, 식당에서든 누군가와 팥죽을 먹게 되면 그날 하루는 왠지 모를 충만감을 느끼게 된다. 마을 부녀회에서 팥죽 한 그릇 들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찾아가면 고마워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종교적 욕구라는 것도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므로 영원한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여러 종교에서는 천국이나 극락이라는 대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신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죽어서 파라다이스에 태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다. 불교에서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을 무량수전(無量壽殿)이라 하는데, 글자 그대로 한량없는 목숨을 의미한다. 이웃 종교의 언어로 표현하면 영생(永生)이 된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점에서, 무한을 바라는 종교적 욕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정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욕구는 인간의 생존과 의미 있는 삶에 작지 않은 도움을 준다. 하지만 욕구가 지나치면 탐욕이라는 새로운 얼굴로 나타나서 우리를 고통으로 안내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탐욕을 세 가지 독[三毒] 가운데 제일 앞에 놓고 있다. 인간의 괴로움은 대개 여기에서 시작하므로 그 위험성을 경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준비한 불교 동화는 작은 것을 탐내다가 가진 전부를 잃어버린 욕심 많은 원숭이에 관한 이야기다. 원제는 '갈라야뭇티 자타카(Kaḷāyamuṭṭhi Jātaka)'인데, 우리말로 하면 콩(Kalāya) 한 움큼(mutthi)에 관한 전생담이 된다.

코살라국의 임금이 변방에서 일어난 작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겠다 마음먹고 조언을 듣기 위해 부처님을 찾아왔다. 이때 부처님은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전생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주 오랜 옛날 왕궁 부근의 울창한 숲속에 욕심 많은 원숭이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신하들은 왕이 타는 말에게 먹일 콩 한 자루를 수레에 싣고 가고 있었다. 마침 나무 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원숭이는 고소한 콩 냄새를 맡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나무에서 내려와 사람들 몰래 콩 한 움큼을 손에 움켜쥐고 입안에도 한가득 넣은 채 얼른 달아났다.

나무 위로 올라온 원숭이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가져온 콩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 그런데 콩을 먹다가 실수로 콩 한 알을 땅에 떨어트리고 말았다. 비록 한 알에 불과했지만, 원숭이는 아깝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손에도 입안에도 콩이 가득한데 말이다.

그는 떨어지는 콩을 잡으려고 손을 벌렸다.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물론 입안에 들어있던 콩마저 모두 떨어지고 말았다. 땅으로 내려와 찾아보았지만, 여기저기 흩어져서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한 알의 콩을 탐내다가 전부를 잃어버린 셈이다. 원숭이 탄식만이 허공을 가르고 있었다.

괴로움은 지나친 욕구에서 시작돼
콩 한 알 탐내다 전부 놓친 원숭이
작은 것에 집착하다 큰 것 잃은 셈
움켜쥔 것 놓아야 또 잡을 수 있어
탐욕 내려놓고 소탐대실 우 피해야

"아이고! 겨우 콩 한 알 때문에 전부를 잃어버렸네."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전쟁을 포기하고 병력을 철수시켰다. 작은 것을 탐하다 국가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작은 것 버리기

욕심 많은 원숭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래전 산에서 내려오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의 일이 생각났다. 당시를 돌이켜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었다. 그런데 '이쪽으로 내려왔으니, 저쪽으로 가면 등산로가 나올 거야' 하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등산로가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말았다.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옷은 나뭇가지에 여기저기 찢겼으며, 몸은 만신창이가 된 것이다. 그때 절실하게 느낀 점이 하나 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왔던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렇다면 당시 왜 나는 왔던 길로 돌아가지 못했을까? 이유는 단순하다. 여기까지 내려오느라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아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치 동화 속 원숭이가 땅으로 떨어트린 콩을 아깝다고 여긴 것과 같았다. 그 결과 일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꼬이고 고생만 더하게 됐다. 어찌 보면 원숭이나 필자 모두 작은 것을 놓지 못하고 더 큰 것을 잃은 셈이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경제학 용어에 매몰 비용 오류라는 말이 있다. 매몰 비용이란 이미 지급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한다. 필자의 경우 잘못된 길로 들어온 상황이며, 동화 속 원숭이는 한 알의 콩을 떨어트린 경우라 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현재 상황을 중심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먼저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대개는 이미 지불한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지나버린 과거가 미래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주식 시장이다.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이 났을 때 곧바로 손절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개는 매몰 비용 오류에 빠져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팔면 그동안 투자한 돈과 시간, 노력이 너무 아깝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넣는 일명 '물타기'를 하게 된다. 그 결과 더 큰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본전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라 할 것이다. 만약 어느 야구팬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마지막 7차전 티켓을 어렵게 구했는데, 경기 당일 심한 독감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명한 사람은 조금 아쉽더라도 예매를 취소하고 TV로 경기를 관람한다. 그런데 티켓을 구하느라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 무리하게 경기를 보러 간다면, 그는 이미 매몰 비용 오류에 빠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오류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자신이 매수한 가격과 공들인 시간, 노력을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라고 조언한다. '얼마에 샀는데, 몇 년을 기다렸는데' 하는 생각은 이미 사라진 비용이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에 얽매여 작은 것을 버리지 못하면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는 자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는 것이 투자의 성공 비결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머리로는 끄덕일 수 있어도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예전부터 널리 알려진, 사냥꾼이 원숭이 잡는 방법을 잠깐 소개한다. 그들은 목이 좁고 바닥이 넓은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가득 넣어둔다. 그러면 원숭이는 항아리 안으로 손을 넣어 과일을 움켜쥔다. 하지만 항아리의 목이 좁아서 원숭이의 손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때 움켜쥔 과일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는 사이 사냥꾼이 다가와 원숭이를 잡는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원숭이의 어리석음을 비웃곤 하는데, 우리의 사는 모습을 돌아보면 이와 별반 다른 것 같지 않다.

작은 것을 버리면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동화 속 원숭이와 같이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 손에 무언가를 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놓아야 한다. 영원히 잡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반대로 손을 펴고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잡을 수 있다. 계속 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손을 펴고 잡을 기회를 엿볼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언젠가 한 친구가 주식에 투자해서 손해를 봤다고 말한 적이 있다. 얼마나 손해인지 물었더니, 그 친구 말과 달리 실제로는 꽤 많은 이익을 보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익률이 훨씬 높았는데, 주가가 내려가서 손해라는 것이었다. 그 친구 역시 땅에 떨어진 콩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이익인데도 손해라는 생각, 탐욕은 그렇게 우리 주변을 끝없이 맴돌고 있었다.



이일야 전 전북불교대학 학장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